

여성인행복한도시대전 2017 Vol. 26

여성인행복한도시대전

2017
Vol. 26

행복한도시대전

도시대전

ZOOM-IN

기획대담 | 젠더폭력을 이야기하다
'젠더폭력 방지법' 계기로
사회적 약자 향한 분노 고민해야

ISSUE & VIEW

젠더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엄연한 범죄!
디지털 성폭력, 개인적 법익
침해 행위로 봐야

대전



2016 대전관광사진전 입선작·겨울 이정희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 행 인 | 대전광역시장
발 행 일 | 2017년 12월 31일
편집위원 | 주혜진·김민영·김형석·류유선·허용주 편집 | 이유라
발 행 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제작 | 디자인스튜디오 203 대전

CONTENTS

ZOOM-IN

- 02 젠더폭력을 이야기하다
‘젠더폭력 방지법’ 계기로 사회적 약자 향한 분노 고민해야



ISSUE & VIEW

- 06 젠더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엄연한 범죄!
- 08 디지털 성폭력, 개인적 법익 침해 행위로 보아

GENDER! TALK & PLAY

- 10 “그런데 왜 아빠는 주방일을 안 해?”
딸아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 11 가사분담은 OK, 주방일은 NO?



이야기 하나

- 12 대전청년일자리카페 ‘꿈터’
카페에서 취업준비 해봤니?
- 14 한남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청년 남대문시장에 뒀다
- 16 지자체 최초 마더센터
‘대덕마더센터’로 오세요



이야기 둘

- 18 성평등 도시 대전
‘두런두런’ 이런 일이
- 20 2017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우리동네 골목길은 안전할까?
- 22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NEWS
- 23 기초자치단체 활동 엿보기

이야기 셋

- 26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 29 대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마을, 공동체로 물들다
- 30 최고의 밥상
로컬푸드로 만드는 ‘건강한 우리집 식탁’

함께하는 생각

- 32 117년간 18명, 노벨 과학상 여성 수난사
과학계에도 존재하는 ‘유리천장’?
- 35 치과의사가 엮은 인생
- 36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우야, 놀자

- 38 딸기와 라즈베리의 만남
추위 녹여 줄 따뜻한 차 한잔 어떠세요?
- 40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홍미애 센터장
“1인 미디어 시대,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 42 대전 전통시장의 변신
삶의 희로애락과 문화예술이 있는 곳



기획대담

젠더폭력을 이야기하다

‘젠더폭력 방지법’ 계기로 사회적 약자 향한 분노 고민해야

‘젠더폭력’, ‘협오범죄’, ‘여성혐오’란 단어가 언젠가부터 TV, 신문, 일상 대화에서도 오르내리는 말이 됐다. 기술 발달로 디지털 성폭력이나 몰래카메라 범죄 같은 신종 성범죄까지 빈발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젠더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며 나섰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도 각종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11월 7일 젠더폭력, 협오범죄를 둘러싼 핵심이슈 및 실태부터 대응방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도룡동 북카페에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은 성폭력(몰래카메라 포함), 사이버 음란물, 가정폭력,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등 크게 4개 분야를 젠더폭력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
센터장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운영위원



김은주
법률사무소 나우
변호사



권도이
경찰교육원
생활안전학과 교수



황문규
충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젠더폭력, 여성혐오를 주제로 핵심이슈, 실태, 사례, 증가원인, 정책에 대한 생각, 대응방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젠더폭력과 협오범죄, 여성혐오라는 단어가 생성되고 확산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운영위원

강남역 사건을 통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여성혐오’란 말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었다고 생각해요. 강남이란 공간의 상징성도 컸죠. 첨단의 상징이자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장소가 강남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있었고 여성은 위험했다는 것이죠.

김은주 법률사무소 나우 변호사

강남역 사건 전부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 여성의 성이 ‘대상화’, ‘객체화’ 됐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빈번하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여성들이 이에 분노하면서 성 대결처럼 변했고, 강남역 사건 이후부터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도 생성되면서 젠더폭력, 협오범죄 등의 단어가 더 확산된 것 같아요.

권도이 경찰교육원 생활안전학과 교수

강남역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여성에 의해 무시를 받았다는 발언, 남성은 그냥 지나치고 여성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젠더폭력, 여성혐오범죄로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남성과

♫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게 행해진
폭력과 가해라고 봤을 때
젠더폭력, 여성혐오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

여성의 대결 구도, 가치관의 대립, 소통의 어려움이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하여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임 가부장 사회에서 자본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죠. 강남역 사건은 성공한 사람으로 구분되지 못한 일명 ‘루저’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한 남성이 자신을 무시한 아줌마 때문에 분노가 생겼고, 아무렇지 않게 발거리를 즐기는 여대생을 보고 분노가 폭발해 살인을 했죠.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게 행해진 폭력과 가해라고 봤을 때 젠더폭력, 여성혐오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권 실제 세상은 비록 불평등할지라도, 이러한 현상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나 권한이 남성들 중심으로 행해져 오다 점차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권한이 늘어나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도 위축되었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는 현상도 보입니다. ‘일베’든 ‘메갈리아’든 이들의 행태가 옳고 그른지의 가치 판단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내는 지금의 시기도 우리가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타인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혐오 감정을 이끌어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어렵죠. 개인이 살아온 환경으로 인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성별이나 계급에 반발해서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죠.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젠더폭력이란 개념이 이슈화될만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제 조성됐다고 봐요.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기존에는 피해자를 사건의 목격자에 불과한 객체로 봤지만, 이제는 피해자 구제 방법을 찾으려서 감정입을 하게 된 측면이 있죠. 두 번째, 제도는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성들이 인지하면서 억눌린 것에 대해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젠더폭력’이라 명명할 수 있었죠. 범죄가 일어난 강남역이란 장소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화장실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대상이 언제든지 내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큰 공포심이 생겼죠.

주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외에 몰래카메라 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이라고 칭하고 발생 및 증가 원인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죠.

김 요즘은 성범죄의 피해자를 위해서 검찰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거기서 활동하면서 사건을 많이 받았는데요. 몰카범죄, 데이트 폭력 등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황 젠더폭력을 여성혐오에 의한 폭력으로 묶기



보다는 '성별 위계질서'에 근거한 폭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성폭력, 데이트 폭력이 젠더폭력이 아니라고 엄밀하게 구분하기도 어렵죠.

임 피해자의 90%가 여성이라면 왜 여성이 90% 인지를 진단하고 여성을 사회적인 약자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젠더폭력의 관점이죠.

김 올해 제가 피해자 국선번호사로서 다룬 약 50건의 사건 중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단 1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뤘던 많은 여성 대상 범죄들이 젠더폭력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주 얼마 전 10대 성매수 범죄에 대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는데요. 성매수 범죄의 대상으로 "왜 10대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란 물음에 '사회적 약자라서'란 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범죄에 대응할 힘이 없는 약자라는 점이 피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왜 여성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까"란 질문의 답도 우리 사회의 성별 위계질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권 약자라고 하는 어린 여성에 대한 범죄는 과거에도 발생했고, 어떤 문화권에서도 일어나죠. 지금에 와서 대폭 증가했다기보다는 매체를 통해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김 그렇죠. 오히려 과거에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숨겼을 뿐이죠.

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범죄로 유인되고, 범죄가 밝혀지고, 알려지는 것도 쉬워졌어요.

황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범죄로 인식하고 여성 개인의 대응력도 강해졌죠. 젠더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보다 그만큼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주 현재 경찰청에선 젠더폭력의 범주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권 학문적으로 더 다양하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포함한 성폭력, 사이버 음란물, 가정폭력,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등 크게 4분야를 젠더폭력으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죠.

주 예전에도 사이버 음란물,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권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해서 2010년 이후로 많은 대책 발표와 범인 검거가 이루어졌죠.

황 그전에는 모두 일반 폭력으로 본거죠. 젠더관점이 확산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대응하라는 요구가 강해졌어요. 이에 따라 정부기관도 젠더라는 용어를 거부감 없이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죠.

주 그렇다면 현재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정책, 지원, 법률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이죠.

김 '젠더폭력방지법'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젠더폭력에 대한 정의도 협의되지 않고, 어떤 것을 어디까지 젠더폭력으로 보고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모호한 거죠. 보통 성범죄를 젠더폭력의 범주의 안에 넣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성범죄 관련한 법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범죄 처벌법에 양형을 높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황 막연한 부분이 있죠.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카테고리화가 필요한데, 아직 젠더폭력 정의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가요. 다만,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은 상징적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돼요. 이런 '특별법을 만들었으니 유의하라'는 상징형법인거죠. 그런데 상징형법의 문제는 단순히 형량만 높아질 뿐, 실제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권 특례법이나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싶어요. 긴급 상황에서 경찰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하죠. 그런데 지금은 가정폭력 외에는 현행 형사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사건에 대해 특별히 더 신속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할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법이 있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초동 대응 수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지금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서 이 둘의 분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경찰의 대응을 위해 법이 필요한 점도 있어요.

임 지금 이미 제정되어 있는 각각의 법이 다 담지 못하는 여성의 문제가 많거든요. 결과로서 '젠더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기 전까지 여성 폭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지를 모아가는 과정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황 권 교수님과 임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자 보호와 예방의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고, 젠더폭력 개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 젠더폭력방지법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외에 추가적으로 젠더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황 사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이 변화해야 하죠.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성적 객체로 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적으로 갖춰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권 감수성 관

〇〇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범죄로 인식하고 여성 개인의
대응력도 강해졌죠.
젠더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보다 그만큼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〇〇

련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김 성 대결 구도를 부추기는 것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가해자가 여성이면 꼭 '여성'을 붙여서 여성운전자라고 보도되는 것처럼요. 이는 악순환으로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생성하고 확산시키면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혐오를 양산하게 만들죠. 이런 사소한 용어 사용에서부터 순화하고 화합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지키다는 생각을 조금 더 크게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전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폭력을 보통 성적, 신체적, 정서적·심리적 폭력으로 나누는데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성적, 신체적 폭력을 행하기 전에 정서적·심리적 폭력으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호간의 '무시', 'SNS 감시',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거는 행동 등 통제적이고 심리적인 폭력 상황이 실제 내 연인 관계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거시적 차원에서는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요?

권 물지마 범죄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도심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선뜻 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대안은 상업지구 일대를 공적자금 과상인회 등을 통한 민간자금을 합쳐서 민간경비에 맡기는 거죠. 도심 상업지구 일대의 순찰, 비상벨 점검, 무질서 행위의 신고 및 계도는 물론 시스템 경비도구를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어요. 또한 상권도 살릴 수 있고, 지역주민을 민간경비 보안요원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죠.

임 요즘 지자체에서 여성들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하죠. 하지만 이렇게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인권 교육도 함께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외에 남성들도 함께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인아카데미, 부모 보수교육 실시 및 공간 제공도 필요해요.

황 그런 교육은 개인이 각자 참여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봐요. 그리고 침묵의 문화를 깨고 사회적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공론화해야 해요. 그렇게 된다면 제도 마련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

주 오늘 대담은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정의부터 정책적 지원까지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젠더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엄연한 범죄!



글 · 이미정_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연구센터장

젠더(gender)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기반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용어인데,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한 남녀를 구분하는 성(sex)과 구별된다. 젠더라는 용어의 도입으로 남녀의 행동이나 사고의 차이가 생물학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역할과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보는 관점이 확산된다.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성역할의 차이의 이면에는 남녀 간 위계적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젠더폭력이란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성별 역할에 대한 규범과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에 근거해 개인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가해행위이다. 젠더폭력 대상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피해자 다수는 여성이다. 이런 이유로 젠더폭력은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는 여성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성, 성소수자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피해자도 포함한다.

젠더폭력의 예로 성폭력, 배우자 및 동거인 폭력, 배우자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학대가 있다. 이러한 폭력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 국제사회에서 젠더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인하고 개인이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젠더폭력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오랫동안 가족이나 사회에서 용인되어 왔는데, 이의 근절을 위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젠더폭력은 오래전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운동 단체에 의해 1980년대 초반부터 아내 구타, 1990년대 초반부터 성폭력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된다. 우리사회에 만연했지만 아내구타나 성폭력 문제는 침묵과 방관으로 은폐됐다. 여성폭력 근절 운동 노력의 결과로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다. 이들 법의 제정으로 젠더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전환점이 마련된다. 두 가지 유형의 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에서 이들을 위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보호 조항으로 피해자의 도움 요청이나 경찰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데이트 폭력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피해자 신고율이 낮아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다. 대다수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수치심, 사회적 편견, 신고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경찰로 바로 뛰어가자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신고하는데 고민이 많은 이유는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붕괴도 각오해야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에 비해 아는 사람인 경우, 신고를 주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조사통계와 범죄통계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조사통계의 경우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70~80%에 달하지만, 범죄통계의 경우 낯선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목격자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적극적 진술과 협조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진술 현장에 나오기 전 가해자 처벌 확실성이나 피해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성폭력 사건 신고가 발생 이후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이와 관련된 이들의 고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증가는 피해를 감추려는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의 확대로 좀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드러나게 됐다.



성적 언행을 표현할 때도 예절이 필요한데,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원하고 동의하는 것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그동안 잘 인지되지 못하던 범죄인데,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데이트 폭력은 구애과정에서 남성의 지배적 역할과 여성의 수동적 태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에서 나타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데이트 상대에게 당한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인지도가 낮고,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에 관대하거나 사후적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에 주는 충격과 주위의 이해와 협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데이트 상황에서 남녀의 명료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상대가 동의하는 행동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적 행동에 있어 상대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데, 상대의 의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난 젠더관계 및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젠더관계 및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성폭행을 합의한 성관계로 보거나, 성폭행 당한 사람을 범죄 피해자로 보지 못하고 '순결 잃은 여성'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성폭행 당한 여자친구를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로 안내하는 남자친구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한 단편이다. 권력자나 엘리트가 저지른 성폭력을 비행으로 덮어주던 관행에서도 벗어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가 이루어진다.

성적표현, 성적행동, 성적취향이 다양화되고 자유로워지지만, 동시에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언행을 실행할 때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예절을 배운다. 성적 언행을 표현할 때도 예절이 필요한데,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원하고 동의하는 것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 개인적 법익 침해 행위로 봐야



글 · 장다혜_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2000년대부터 이슈화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포괄하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범주로 다루어져왔다. 주로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의 전달, 성적인 대화 강요, 신상정보 및 음란한 동영상, 사진 유출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0년 전후로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이 급증하게 됐다.



사이버 폭력에서 디지털 성폭력으로 개념 전환

2015년 『소라넷아웃프로젝트』의 추진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음란사이트 '소라넷'에서 이른바 국산 음란물로 유포되는 성관계 영상이 올라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애인의 성적인 사진, 영상물을 올리는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 '강간 이벤트', '강간 모의' 게시판, '한국형 포르노' 등이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음란물과 성폭력의 경계 모호, 음란물 유포의 결과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인격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침해, 온라인 강간 모의 행위가 개인에 대한 명예만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신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인 사이버 폭력,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개념보다는 디지털 콘텐츠의 손쉬운 복제라는 특성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구성·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유형으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제시 또는 전시·상영하는 '유포형'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행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유포·수입·수출하는 '제작형', 디지털 성폭력 행위의 게시물에 댓글, 연락 등으로 동조·참여하는 등 가담하는 '참여형', 강간 촬영물을 소지·매입·시청하는 '소비형'으로 분류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디지털 성폭력은 성폭력, 음란물, 명예훼손이나 모욕, 유해이미지 등 각각 다른 종류의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구성되었던 법적 개념을 넘어 디지털 이미지나 정보를 활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체계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회적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개념에서 유형화한 가해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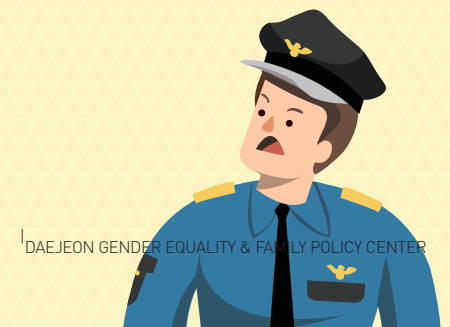
첫째는 집단성(collectiveness)이다. 특정 사이버 공간에서 해당 촬영물을 유포, 소비, 참여하는 행태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유사한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꿀뱅이 강간 모의(초대)'는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집단성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접촉적인 성폭력의 형태를 오프라인 환경에서 접촉적 성폭력 형태로 발전시키고 사이버 성범죄자를 강간 교사범, 방조범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의 집단성을 이해한다면, 디지털 성폭력의 행위책임이 집단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적 행위책임은 온라인 가해행위에 참여한 이들뿐 아니라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있다.

두 번째는 차별적 혐오로서의 성격이다. 성별에 기초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혐오를 공적으로 선동하기도 한다. 최근 EU에서는 여성 이미지의 변형(합성)을 통한 성적 대상화 등을 혐오표현으로 규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영리성이다. 유포를 통한 영리적 이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역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영리 목적의 사이버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 특징은 피해영향의 성별성이다.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에 대한 말살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자살 행위로 연결되기도 한다. 성적인 사생활의 유포는 성적 이중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극심한 피해영향을 가져오며, 이는 일종의 사회적 여성살해(Femicide)로서 성격을 가진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가 접촉성/비접촉성, 폭행, 협박이라는 강제성의 존재 여부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디지털 성폭력 내 또는 다른 성폭력과 의 관계성과 피해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앞선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들은 사회구조적 폭력으로서 젠더 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디지털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그로 인한 낙인 등 성별 불평등 구조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양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의 내용과 쟁점

디지털 성폭력은 음란물 제작 또는 유포행위가 특정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자 개인적 법익 침해 행위로 인식된다. 문제는 현재 형사법 체계상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처벌법 규정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은 범죄가 가지는 침해적인 속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 현행 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매매 광고 또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있다. 『아청법』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은 대부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내지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규정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주로 음란물을 심사하는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됨으로써 성폭력처벌법상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음란행위(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음란의 개념은 피해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은 사회질서라는 사회적 법익과 관련해 구축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판례들에서 행위가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단의 핵심이 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의 음란행위(음란물 심사와 동일한 기준)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판단에서도 나타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어 전신이 촬영된 경우 내지 양말을 신은 발이 촬영된 경우를 이른바 '성적인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촬영 부위가 성적 부위인가 또

는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도한 노출이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의 기준에 따르면 교복 사진이나 일상 사진 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화장실 몰카 중 성기가 보이지 않는 촬영물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

향후 과제

앞서 살펴본 현행 법체계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법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르노 등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해 전체 질서의 교란과 침해라는 사회적 법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성별 불평등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지는 구조적 속성을 고려하면,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가 숨어있다. 향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적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개인적 법익 침해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개념 구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사회적 법익 침해 행위인 '음란물' 내지 '음란행위', '청소년 유해' 등의 법적 개념을 제거하고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요건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디지털 성폭력이 가지는 개인에 대한 피해영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적 법익 침해 행위로서 보호법익을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바탕이 되는 사생활과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사생활 침해를 가장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불법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성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고려해 가중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차별적 혐오를 조장, 선동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사회에 대한 침해적 속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규제는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차별적 혐오와 이에 대한 옹호 등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의 도입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왜 아빠는 주방일을 안 해?” 딸아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글 · 신석우_CBS 대전본부 기자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고, 귀걸이나 목걸이도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꼭 여자들만 하는 건 아니야. 거꾸로 여자도 원하면 담배를 피울 수 있고, 벙커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남자 것, 여자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가 한 살 터울 남동생과 함께 ‘여자 색’과 ‘남자 색’을 구분하는 것을 보고 해준 말이다. 남자도 분홍색 옷이나 인형 장난감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파랑색을 좋아할 수 있다는 말로 시작된 일장 연설인 셈이었다.

개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것에 유난히 거부감을 갖고 있던 나는 90년대 초반 고등학교 시절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자기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여자”라고 답했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식의 이름을 빗대 ‘○○엄마’ 혹은 ‘△△네’로 불리던 어머니 세대들의 호칭이 못내 불편했던 것인데, 지금도 나는 아내에게 ○○씨라고 부른다. 세상 소중하긴 존재이지만, 부모 품 안에서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길을 찾고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결혼도 좋지만 연애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트인(?)’ 아빠라는 거창한 자부심마저 갖고 살아가고 있다. 아니, 있었다.

그런데, 아뿔싸! 이런 자부심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 사태가 있었으니, 딸아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난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늦은 퇴근으로 자리를 비운 저녁이었는데, 딸아이가 엄마에게 묻더라. “엄마! 그런데, 왜 아빠는 주방일을 안 해?” 아이의 말을 전한다며 건넨 말이었지만, 아내의 얼굴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양 반짝반

짝 빛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판에는 감냥 찢 이것저것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딱히 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거창한 아빠의 ‘생각’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접하게 되는 아빠의 ‘모습’이 더 가깝게 와 닿았을 터이다. 물론 남자가 주방일을 해야 양성평등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계적 인식은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주방일을 포함해 잠재의식 속에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생활 곳곳에 배어있었던 건 아닐까.

딸아이의 한 마디에 일격을 당한 나는 뜻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 개인마다 상황과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탓에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밀기 일쑤였다. 모든 사람이 당사자인 탓에 주장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는 군대와 출산을 두고 논란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가. 그나마 답을 찾은 건, 딸과 아들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였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논란이나 대립이 조금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공평과 형평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다. 모두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공평도 중요하겠지만, 각자의 특성을 감안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형평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추석 연휴 때 떠난 가족여행에서 딸아이의 화장실은 대부분 아빠와 함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그랬고, 유명 관광지에서도 그랬다. 대부분 여자 화장실에는 긴



♫
모두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공평도 중요하겠지만, 각자의 특성을 감안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형평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
줄이 만들어져 있었고, 남자 화장실은 비교적 한가한 경우가 많았다. “급하다”며 걸음을 재촉하던 딸아이가 남자 화장실 앞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자 화장실이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화장실에 대한 논의가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뤄지면 어떨까.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공평은 인정하되 형평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추석 연휴 때 남성 장관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여성가족부의 ‘가족과 함께하는 성(性)평등한 추석명절 캠페인’을 홍보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번 한가위 때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들에게 잘 해주기 바란다”거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라”는 등의 메시지였는데, 모든 장관들이 줄곧 강조한 건 ‘가족’이었다. 사실 양성평등의 시작도 가족에서 찾을 수 있을 듯싶다. 내 아이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못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W**

가사분담은 OK, 주방일은 NO?

글 · 김보미_CTC바이오 마케팅본부 주임

필자는 어느덧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새댁이다.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집안일을 분담해 하고 있는데 신랑은 빨래와 분리수거를, 필자는 청소와 요리를 맡고 있다. 결혼 전 자취를 오래했지만 1인가구들이 그렇듯 밥을 제대로 차려서 먹지 않았고, 덕분에(?) 요리 실력이 없는 편이다. 그래도 반찬 투정 없이 잘 먹고 가사일 분담도 책임감 있게 해주는 신랑 덕분에 신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기만 하다.

서로가 편안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크게 다툰 적 없이 잘 지냈지만 서운함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는 바야흐로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 설날이었다. 필자의 시댁은 기독교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식구들이 같이 나눠 먹을 음식만 조금 하는 편이라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웬걸?’ 손이 크신 시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양의 식재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 않을 수 없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간통 큰 새댁의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왜 대부분의 집안일과 요리, 육아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정의 역할을 맡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

♫

그래도 한편으로는 ‘신랑이랑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위안을 삼았는데 그것도 잠시였다. 고난이도의 요리 실력이 필요한 갈비와 잡채, 나물은 시어머니의 몫이었고, 초보 며느리인 필자는 딱히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뜨거운 불과 기름만 있으면 가능한 전 부치기를 담당했다. 신랑과 꼬치를 꽂고, 전을 부치기 위해 기름을 두르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한 마디에 필자는 울컥하고 말았다.

“아들, 이제 됐어. 방에 가서 TV 보든지 컴퓨터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에 같이 하겠다고 말하던 신랑은 어머니의 한소리에 이내 눈치를 보며 바람 쐬고 오겠다고 나갔다.

필자의 머릿 속은 멍해졌다. ‘이게 뭐지? 신랑이 꼬치를 좋아하니까 많이 부치자고 하시면서 정작 전을 부칠 때는 들어가라니.’ 이어서 어머니는 “남자가 무슨 주방일이니, 원래도 재는 꼬치 쪼는 거만 했어. 쉬엄쉬엄 하면 되니까 혼자 할 수 있지?”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본격 ‘며느라기’의 길로 접어드는 그 순간이었다. 필자는 꼬치전을 시작으로

동태전, 동그랑땡, 굴전까지 오롯이 혼자 부쳤다.

물론 며느리로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도리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와 평상시에 하지 못한 얘기도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랑과 둘이했다면 고생도 덜하고 시간도 절약되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생겼다. 평상시 하나 뿐인 며느리라고 많이 챙겨주시고 신랑에게 집안일 많이 도와주라고 신신당부 하시지만 남자에게 ‘주방일’은 예외인가 보다.

“왜 대부분의 집안일과 요리, 육아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정의 역할을 맡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게 됐다. 물론 과거보다 많은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위도 향상되고 있다. 또 요리나 살림을 더 좋아해서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는 남성의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 주변의 맞벌이 부부나 젊은 세대들, 혹은 방송에 비춰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부부들을 보더라도 가정내의 집안일과 육아를 부부가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성차별적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특히 필자의 부모님 세대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 짓고 있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낀다.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다. 필자를 포함해 우리 모두 집안에서 심심치 않게 마주하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W**

대전청년일자리카페 '꿈터'

카페에서 취업준비 해봤니?

지난 7월 문을 연 '꿈터'가 청년들에게 인기다. 대전시가 극심한 취업난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마련한 '꿈터'는 청년층 생활권 내에 취업지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취업·창업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JOB cafe다. 현재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지리적 여건으로 기존의 취업지원 시설 활용이 어려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접근성 및 취업 정보 제공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열었다.



☎ 운영 프로그램

취업상담 및 알선 (주 1회)

- 취업정보 제공 및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 본인 취업성향 및 직무 적합성 등 검사를 위한 적성심리 검사 제공

전문가 멘토링 (주 1회)

- 취업컨설팅전문가의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법 컨설팅
- 취업전략, 면접요령 등 조언
- 모의 토론면접 및 모의 PT면접 등 면접 스킬 단계별 훈련

취업특강 (월 1회 이상)

- 인사담당자, CEO, 취업전문가 특강을 통한 취업 트렌드와 전략, 직업·직무 분석

현장면접 (월 1회 이상)

- 구인기업과 구직청년의 현장 매칭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구직활동 공간 제공

-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스터디룸 제공

- ☎ **전용블로그** | blog.naver.com/042dreamcafe
- ☎ **청년인력관리센터** | daejeon.work.go.kr
- ☎ **신청문의** | ☎데일리잡 042-828-3013
청년인력관리센터 042-380-3085



☎ 취업 프로그램 참여방법

Step 1

blog.naver.com/042dreamcafe 접속

☎ 꿈터 신청 안내 게시판

☎ 신청 안내 게시물 확인

Step 2

게시글 상단의 '신청링크' 클릭 후

신청페이지에서 상세사항 작성

Step 3

접수 후 신청확인 문자를 수신하면 예약 완료 (문자 수신은 최대 1일 소요)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 완료 후 신청 기간을 변경하고 싶을 시, 예약변경 게시판의 게시물에 원하는 날짜를 다시 적어주세요. (확인 후 개별연락 드립니다.)
- 예약된 시간에 사전 연락 없이 미참여 할 경우 15분이 지나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 컨설턴트와 상담 완료 후 다음 예약은 현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신청하기

카페 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주 카페 운영시간에 전담 컨설턴트에게 직접 신청

대전시는 대학 주변 등 청년밀집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통해 1일 평균 이용자 수, 카페 공간 분위기, 내부 활용여건, 사업주 마인드, 청년 희망사항 등을 고려한 후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자리카페를 선정했다. '꿈터'가 문을 열고 한 달여 만에 일자리카페안내시스템(키오스크)을 이용한 횟수 1만1,880건, 일자리 상담 및 알선 176명에 달하면서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꿈터'는 처음 충남대 부근 카이로스 카페, 한남대 부근 유엔아이 카페, 우송대 부근 커피니 카페 등 3곳으로 시작해 지난 10월 한밭대 주변 데일리 카페, 목원대 주변 파스쿠피 카페 등 2곳을 추가 선정해 운영 중에 있다.

이곳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와 커피나 음료를 즐기며 일자리 정보, 취·창업 컨설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용자 대부분은 대학생이며 대기업·공기업·일반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 및 채용분야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상담을 받길 원하고 있어 이용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꼭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며,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가 이용할 수 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6~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취업전문가가 주 2회 이상 상주해 취업상담 및 알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컨설팅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상담은 일대일로 진행되며 상담료는 무료다. 이와 함께 인사담당자, CEO, 취업

- 1 2 공동 카이로스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대전 일자리카페 꿈터 표지판
- 3 꿈터에 들어서면 취업정보를 알려주는 키오스크가 반긴다.
- 4 꿈터 개소 후 한 달여 만에 이용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 5 취업전문가가 취업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 6 취업 트렌드 및 전략 등 고급 정보를 담은 특강을 매월 마련하고 있다.
- 7 구인업체가 직접 진행하는 현장면접도 갖는다.

전문가의 시종별 맞춤 특강 그리고 현장 면접은 매달 진행되고 있다. 각 카페에 설치된 일자리카페안내시스템(키오스크)에서는 종류별 채용, 지역별 채용, 취업·창업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는 전용 블로그(blog.naver.com/042dreamcafe)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고, ☎데일리잡(042-828-3013)을 통한 전화 접수,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0시~17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카페 내 알림판 또는 전용 블로그에서 상세 일정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W

☎ 일자리카페 '꿈터' 5곳

카이로스

유성구 공동로 14번길 22(충남대 정문 500m)
Tel | 042-286-2047

유엔아이

동구 홍도로 33번길 74-14(한남대 정문 450m) 2, 3층
Tel | 042-622-8479

커피니

동구 동대전로 162(우송대 서캠퍼스 500m) 2, 3층
Tel | 042-631-5006

데일리

유성구 학하서로 121번길 130(한밭대 정문 450m) 2, 3층
Tel | 042-824-2014

파스쿠피

서구 도안북로 93번길 25(목원대 정문 300m) 1, 2층
Tel | 042-826-8497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

청년 사장님, 남대문시장에 뒀다

요즘은 시장이나 가게에 들어서면 알바(아르바이트)생으로 착각할 정도로 젊은 사장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취업난이 장기화 되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청년 사장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창업 도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

한남대학교는 청년 실업난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4월 '한남 글로벌 창업 & 디자인 센터' 개소식을 갖고 남대문시장(삼호·우주상가)과 공간지원 협약을 진행했다. 이는 한남대가 창업교육과 실천창업 간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창업의 위험요소를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형태의 창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창업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사업의 일환이다.

한남 글로벌 창업 & 디자인 센터에서는 유망한 한남대 예비 창업자들에게 남대문시장의 일부 상가 점포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이 초기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센터 개소식에 참여한 이덕훈 한남대 총장은 "한남 글로벌 창업 & 디자인 센터를 기반으로 젊은 열정과 넘치는 감각으로 패션-뷰티 산업분야에서 남대문시장의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근준 한남대 사업관리확산센터장은 남대문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받는 질문이 한 가지 있다고 했다. "왜 남대문시장입니까?" 그는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고 말한다. 남대문시장이 갖는 상징성 즉,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대문시장은 1414년(태종14년) 시전으로 개시하여 1964년부터 현재의 남대문시장주식회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2015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진행형 역사를 만들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을 넘어 서울특별



2



3

- 1 남대문 삼호·우주상가에 현장학습 중인 한남대 학생들
- 2 한남 글로벌 창업 & 디자인 센터와 남대문시장(삼호·우주상가) 공간지원 협약식
- 3 남대문 삼호·우주상가 액세서리 매장

88

남대문시장은 600년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99

시 중구 남대문시장 4길21(대지면적 30만평)에 위치하는 남대문시장은 점포(약 10,000개), 취급품목(의류, 액세서리 외 1,700여종의 도, 소매), 시장 종사자(상인포함 약 50,000여 명), 1일 반입물동량(약 1,800여 톤) 등 최대 규모로 움직이는 최고의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다. 남대문시장은 600년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에 삼호·우주상가가 있다. 삼호·우주상가는 남대문시장 주식회사가 보증하는 남대문 액세서리를 대표하는 상가로 1978년 가디스를 창업한 이래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미주, 동남아, 남미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 현재 70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하여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헤어 액세서리, 은제품, 스톤 및 기타 액세서리 부자재 등 매출의 70~80%를 해외 수출하는 액세서리 전문상가이다.

삼호·우주상가는 글로벌 명품시장의 선도적 대응과 시장 발전을 위해 한남 글로벌 창업&디자인 센터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10개의 점포를 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1점포의 면적은 가로 1,700cm x 세로 700cm(약 0.3평)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료에 필요한 모든 공간과 비용을 제공한다. 더불어 센터에서 개발된 디자인, 제품 등의 특성과 우수성을 검토하여 멘토 상인과의 쌍방 합의에 의한 판매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 많은 기관이 자원을 투입하여 성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업 아이템들이 상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의 효과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남대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발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상가 상인들을 위한 4차 산업 교육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상인들을 위한 3D프린터 활용 교육프로그램과 3D프린터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 등을 참여 학생들과 협업을 통해 지원·운영하고 이를 위해 3D프린터를 센터에 설치 할 계획이다. 또한 삼호·우주상가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해 상가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학생들을 선발하고 17년 2학기 동계 방학기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업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한남 글로벌 창업 & 디자인 센터는 전통시장의 새롭고 발전적 모델을 만들고자 하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W](#)



지자체 최초 설립 여성소통공간

함께 아이를 키우는 ‘대덕마더센터’로 오세요

사람과 자동차가 한껏 바빠 움직이는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도심 한복판에 선비가 앉아 책을 읽고 있을 것 같은 단아한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보물 제209호 동춘당은 효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송준길(宋浚吉)이 자신의 호를 따서 건축한 별당으로 대덕구의 명품공원 동춘당 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드높은 아파트 속에서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동춘당이라는 역사 문화재와 현대적인 북카페가 만나 주민들이 자연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는 힐링 공간이 탄생됐다.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동춘당 공원 내에 위치한 대덕마더센터는 관주도형 전국 최초의 마더센터로 지난 9월 2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이 시작되었다. 여성친화도시인 대덕구가 여성들을 위한 소통공간으로서 대전 1호 마더센터를 설치하고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더심 협동조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1년 자발적 봉사단체에서 시작한 마더심 협동조합은 각종 홍보 활동 및 다자녀 학습 멘토링, 다자녀 장학금 지원, D-라인 사진 콘테스트, 대덕구 12개동 주민센터에서 인구교육 등 다양한 행사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 및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덕마더센터는 북카페 '노리'와 소모임방, 창작놀이방 등을 갖추고 있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좌 개설·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다양한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더 나아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모임으로는 독서, 우크렐레, 뜨개질,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등이 있으며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쁜 글씨쓰기 캘리그래피, 웰빙 쿠키, 빵 만들기, 생활소품 및 놀이감 공예 등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덕마더센터에서는 공동육아를 위한 모임과 부모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산모와 영유아 부모들을 위해 대덕구 건강관리지원센터와 대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카페 노리에서는 센터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커피와 수제차,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제 샌드위치, 계절주스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열고 지역민들이 재배하거나 손수 만든 농산물이나 식품을 위탁 판매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대전시 대표로 2017년 마을기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상인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향후 청소년 및 영유아를 위한 건강 메뉴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www.daejeon.go.kr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0
전화: 042-621-3311
인터넷 커뮤니티: cafe.naver.com/bookcafenori/4



성평등 도시 대전

‘두런두런’ 이런 일이

2017년 대전여성 취·창업 박람회

대전지역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2017년 대전여성 취·창업 박람회’가 지난 9월 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박람회에는 150개 지역기업이 참여했으며,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취업정보와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됐다. 이번 박람회는 1층에 창업관과 취업지원관, 취업컨설팅관, 유관기관 홍보관, 고용복지+센터, 여성친화기업 홍보부스 등이 배치됐으며, 2층 채용관에는 이력서クリニック, 직업선호도검사 등, 3층은 4차 산업직업관, 직업체험관, 직업정보관, 이벤트관 등 총 210개 부스가 마련돼 구인자와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했다. 특히 구직자에게 맞는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한 직업선호도검사, 유망 직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직종을 소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4차 산업직업관에서는 3D영상 이미지, 무인비행 솔루션, 가상현실 종합솔루션 등 관련 기업의 현장면접 부스도 운영돼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 사례발표와 함께 개그우먼 팽현숙 씨의 특강을 통해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고취하기도 했다.



성매매 추방 주간 합동 캠페인

대전시는 지난 9월 21일 으능정이거리 등 은행동 일원에서 성매매 추방을 위한 민·관·경·교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캠페인은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관련 시설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매매,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대전시는 캠페인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매매 근절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주여성 일자리 지원 ‘누룽지 사업장’

대전시는 지난 11월 6일 이주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누룽지 제조 사업장을 개소했다. ‘누룽지 사업장’은 대전으로 온 이주여성 중 폭력 피해를 입은 15명의 자립을 위한 곳으로, 대전시공무원노조를 비롯해 한남대학교, 전북은행, 농협, 하나는 행동에서 쌀과 기계를 지원받아 첫발을 디디게 됐다. 이주여성들은 유명 누룽지 공장을 견학하고, 커피, 복분자, 아로니아 등 다양한 맛의 누룽지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누룽지 ‘다(多)맛’은 제품 개량 및 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누룽지 사업장은 작지만 이주 여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제5회 청소년지도자의 날

대전시는 지난 9월 1일 대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대전지역 청소년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대전시 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선서 낭독으로 다짐을 이끌었다. 이어서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상담·복지·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상식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형태 전 한남대 총장의 ‘청소년 세대-미래 국가의 자산’을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행복 콘서트’를 열어 친선과 화합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공연으로는 팝페라와 색소폰, 댄스, 통기타 가수 공연이 펼쳐졌으며 지역 청소년 단체에서 준비한 후원 물품과 경품 등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대전시는 “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를 통해 대전지역 청소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초록펜동아리 박람회

대전시는 지난 10월 28일 지역아동센터 대전시 지원단 주관으로 대전대 운동장에서 ‘2017년 초록펜동아리 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대전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종사자,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펜 동아리와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초록펜 우수 동아리에 대한 대전시장 표창, 2017년 초록펜동아리 활동을 담은 전시부스 운영과 더불어 전통놀이 체험, 조선시대 역사인물 만들기, 장래희망 캘리그래피 등 초록펜동아리의 특성을 담은 10개의 체험부스로 진행됐다. 초록펜동아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4개 동아리, 105명의 초록펜동아리 자원봉사자가 대전 관내 지역아동센터 145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람회와 더불어 ‘2017 제7회 지역아동센터의 날 한마음 명랑 운동회’도 개최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다문화 화합한마당·Walk Together

대전시와 NGO단체인 월드휴먼브리지가 공동주최한 ‘2017 다문화 화합한마당·Walk Together’가 지난 9월 24일 엑스포시민광장 및 한밭수목원 일원에서 다문화가족, 유학생, 일반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키르키즈스탄 전통춤, 국가별 패션쇼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5개구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들이 국가별 패션쇼에 직접 참석해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62개의 부스도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W



2017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우리동네 골목길은 안전할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매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16년 대전시 지역 성평등 지수 결과^①를 반영하여, 2015년에 작성된 대전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중 안전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분석했다. 또한 이행점검과 연계해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행점검을 위해 우선 성평등 조치사항이 기재된 안전분야 사업 60건을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했다. 이후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전부이행', '부분이행', '미이행'으로 분류해 수치화 했다. 그 결과, 함께 이행을 전부이행 61.7%, 부분이행 23.3%, 미이행 1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 이행율은 서구와 유성구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이행율을 보인 곳은 중구로 나타났다.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혹은 '성인지적 모니터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 수행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점검된 결과를 추진기관에 전달해 성인지적 변화를 유도하는 환류 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정책을 조정·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해 이행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안전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중 '골목길 보행자 안전'이 선정됐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① 도시 재생 효과 높은 지역, ② 생활도로 지정

확충 필요 지역, ③ 밤길 보행자 안전 취약 지역 등 3단계의 탐색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모니터단은 자치구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을 통해 추천받아 총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성인지적 정책 모니터링과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후 2인 1조로 편성된 모니터단은 선별된 '골목길 보행자 안전 취약 지역'을 2회 이상 방문해 지표를 활용한 현장 점검, 이용자 및 공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난 9월 20일, 모니터링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모니터단은 전문가들과 모니터링 중간 결과, 정책 개선안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29일에는 모니터단,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행점검 현황부터 모니터링 활동 내용, 성인지적인 정책 제안 사항까지 전반적인 결과를 공유했다.

모니터링 현장 점검 내용과 그에 따른 다양한 성인지적 개선안 중 일부는 우측과 같다. 자세한 이행점검 결과, 모니터링 현황 및 개선안 등은 '2017년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개선안 도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

- ①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대전시 분야별 지역성평등 지수에서 전년 대비 안전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 ② 조치사항에 기재한 사업 추진 계획의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시행한 경우
- ③ 조치사항에 기재한 사업 추진 계획의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만 시행한 경우



모니터링 진행과정

모니터링 대상 사업 및 지역 선정·지표 개발 및 설정 (7월)

모니터단 모집 (8월)

모니터단 교육 (9월 5일)

모니터링 실시 (9월)

모니터링 중간보고 (9월 20일)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최종결과 발표 (11월 29일)

모니터링 현장 및 주요 개선안

유성구 유성시장 내 공원 및 체육시설
나 어디 있을까? 숨바꼭질 최고의 장소



▶ 보안등 조도 개선 및 추가 설치 제안

대덕구 신탄진고 뒤, 한신아파트 옆 공원
안심벨? 장신벨!



▶ 아동·여성·장애인등의 신체 및 특성 고려해 부착 필요

서구 용문동 연합정형외과 병원 부근
가로등 아래 멀리뛰기



▶ 보안등 간격·높이 조정 및 위치표시 안내판 가시성 확보 필요

중구 서남부터미널 유등천로 324번길
우리 동네주민은 외출타기 고수



▶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안

동구 대전여고 정문
학교 가는 길이 무서워요!!



▶ 인도·차도 구분하는 블록 및 펜스 설치 필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News

제9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_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3일, 박경은 가독이심리상담센터 대표와 함께 아내로, 엄마로, 딸로 그리고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 진단, 해소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도형 및 지문으로 알아보는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여성의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알아봄으로써 치유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

제10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_ 젠더 관점으로 풀어보는 제4차 산업혁명



김형주_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6일 열린 제10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에서 김형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 전환과 도시혁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연구팀장, 이해경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차성란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모습과 그에 따른 여성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다 양성평등한 도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2회 젠더 콜로키움_ '스마트한' 세상과 길 위의 소녀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가족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제2회 콜로키움에는 '한국 십대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있었다. 조 대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알선·유인·조장 현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정책에 주목했다. 이후 참여자들과 예방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고, 성매매를 성착취로 보고 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진경_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News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주류화 포럼_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11월 10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제도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미원 도시와젠더 대표와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발제했으며,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임정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심준영 전북대학교 강사, 이현정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김복렬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해 대전시와 세종시의 여성친화도시 사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 및 대면 컨설팅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8월 29일~30일, 대전시 본청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미원 도시와젠더 대표와 임원정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박민아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가 담당했다. 또한 9월 11~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면 컨설팅을, 9월 21일과 22일에는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대면 컨설팅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는 10월 12일~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박민아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가 담당했다. 대면컨설팅은 10월 26일~27일에 세종시청에서 실시했으며, 올해 대상 사업은 체계적인 대상 과제 선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콜로키움, 체크리스트 활용, 사업부서 내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W](#)



DAEJEON

기초자치단체 활동 엿보기

동 구 D O N G - G U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가족 행복한마당



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5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도전하는 여성의 꿈!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역발전 기여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으로 시작해 비전 선포를 위한 부채 퍼포먼스로 장관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음악공연이 펼쳐졌고, 기념식장 로비에서는 가족행복사친공모전,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자녀 더 갖기 운동 캠페인, 동구명소탐방 『스마트 스탬프 투어』,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천사의 손길 행복+운동,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등 홍보 부스를 마련함으로써 체험의 장을 열었다.

여성친화도시 제2기 서포터즈 위촉식



동구는 지난 9월 25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을 수행 할 여성친화도시 제2기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드힐 어린이집 원아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공개모집 및 단체추천 등을 통해 선발된 46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운영위원의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서포터즈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포터즈는 향후 2년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방향과 시책 제안, 여성친화도시 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협약식



동구는 야간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여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대전동부경찰서, 24시 편의점 35곳과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란 여성들이 신변을 위협받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한 후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안전한 귀가를 돕는 곳이다. 이번 협약식은 비상벨 설치와 신속출동 응급구조, 운영매뉴얼 활용 등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관내 편의점 35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성안심지킴이집'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중 구 J U N G - G U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중구는 지난 7월 3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맥키스오페라의 '뽀뽀한클래식' 공연과 김순옥 강사의 '웃음과 행복' 특강으로 유쾌한 시간이 되었고, 출산장려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양성평등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함께 마련되어 우리 지역 여성지도자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제18회 중구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 개최



중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 16일 무주 무풍송지마을을 방문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농촌 체험을 테마로 하는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했다. 사과 따기 체험을 비롯하여 매실농장, 버섯농장 등을 둘러보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며, 주요 소비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여성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관·경 합동점검



중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여성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대상 화장실은 26개소로, 유동인구, 관련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의 주요 피해자인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유사범죄 억제 효과도 예상되며, 앞으로 수시점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



서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4일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아동과 여성의 안전 결의문 낭독, 양성평등 퍼포먼스와 역할극 공연, 45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서구는 지난 11월 15일 둔산동 갤러리 타임월드 랜드마크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아동학대 예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 관련 26개 기관과 시민·봉사단체 회원 600여 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아동 보호 체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탄방동 숯뱅이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



서구는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탄방동에 '숯뱅이 여성친화 행복마을'을 조성했다. 탄방동 숯뱅이 행복마을에는 70구의 LED 보안등 개선, 완충녹지 잔디등 설치, 불법쓰레기 방지 공간이었던 자리에 썬치공원 조성, 남산공원 옹벽 미관개선, 로고젝트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등이 실시됐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에는 유관기관인 둔산경찰서와 함께 '탄방동 숯뱅이 행복마을' 원·투룸 밀집 지역의 도시가스배관에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유 성 구 Y U S E O N G - G U

2017년 여성지도자 맞춤 연수



유성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 17일과 11월 7일, 2017년 여성단체협의회 맞춤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맞춤 연수는 여성단체협의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1:1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십과 발표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포천 허브아일랜드로 떠나는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여성·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특강과 소통 힐링 토크를 통해 단체 간 화합을 도모했다.

여성친화 주민참여단 활동보고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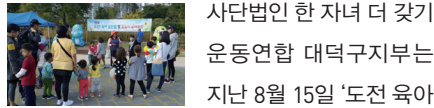
유성구는 지난 11월 10일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멘토단(여성단체연합), 구의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유성구 '여성친화 주민참여단 활동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유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발표, 타 지자체 공간사례 보고와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관점에서 공유공간에 대한 논의, 여성친화 주민참여단 활동의 비전과 과제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성친화도시로서 유성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날 논의된 내용과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스마트 유성 안심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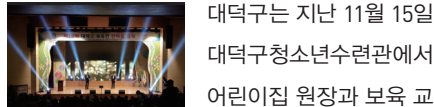
유성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중 하나인 '여성안심존' 시범 구축사업으로 지난 11월 범죄취약지역인 봉명동 관광특구 지역과 공동 로데오거리 일원에 비콘(블루투스 송수신기)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여성안심존에서 유급상황 발생 시 전원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현재 위치가 보호자와 경찰서로 전송돼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대전 자치구 중 최초의 스마트폰앱 비상호출시스템 도입으로 현재 여성안심존 내 가로·보안등에 비콘 330개를 설치했다. 앱은 비상연락처 설정, 안심구역 보기, 국민행동대피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시대에 밤길을 책임질 든든한 호신용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도전 육아 골든벨 및 놀놀이 숲체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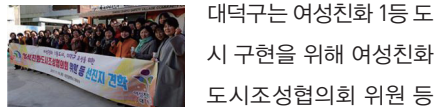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덕구지부는 지난 8월 15일 '도전 육아 골든벨 및 놀놀이 숲체험전'을 개최했다. 5회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다자녀가정 장학금 전달, 육아 골든벨, D라인 사진 콘테스트, 인구교육, 다자녀 학습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가족, 세대, 이웃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며,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많은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제10회 대덕구 보육인 한마음 축제



대덕구는 지난 11월 15일 대덕구청소년수련관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대덕구 보육인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통과 섬김의 행복 공간'이라는 주제로 보육교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 어린이집 연합회 화합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성악가 그룹인 두두빠빠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보육 유공자 표창장 수여, 행복공감 토크 등이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작품 100여 점도 전시됐다.

여성친화도시 선진지 견학



대덕구는 여성친화 1등 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 등 41명과 함께 지난 11월 16일 대구 수성구 여성클럽과 달서구 안전마을, 대구수목원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 도모와 관심 고조, 여성친화사업 추진리더 역량강화, 정책 참여자 간 소통 증진의 기회가 됐다. 또한 다양한 선진 사례를 통해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접목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제29회 대전광역시 여성대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17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함께하는 양성평등 비상하는 행복대전'을 주제로 양성평등 기념식과 여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여성대회,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샌드아트로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에 맞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연출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고, 여성친화도시 실천 결의문 낭독으로 '여성친화하브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 '갈등해소로 하나 되는 대전 만들기' 강연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14일 여성단체장, 대전시민, 회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갈등해소로 하나 되는 대전 만들기'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작은 갈등부터 해소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자'는 주제로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남녀노소, 단체 간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 및 기법 함양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 '갈등해소로 하나 되는 대전 만들기' 캠페인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3일 시청 대강당과 9월 23일 시청 남문광장에서 '갈등해소로 하나 되는 대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전시민 3,000여 명에게 '갈등해소를 위해 작은 배려를 실천해 주세요'라는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 대전여성단체연합

+ 여성친화도시 혁신사례 견학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월 27일 '여성친화도시 혁신사례 견학'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대전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과 함께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마을예술창작소, 시민청을 살펴봤다. 도시재생, 주민참여를 통한 쌍방향 정책소통 등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으며, 대전형 여성친화도시 사례 발굴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년 추모식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월 12일 교육청 앞에 마련되어 있는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년 추모 공간에서 '49제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년사망사건공동대책위에 속한 많은 단체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편지를 낭독했다.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함께 나누며 끝까지 해결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聽策)투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월 13일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聽策)투어'의 3번째 여정으로 경남을 방문했다. 대전과 경남의 여성리더들이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보수적인 환경에서의 진보여성 운동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지역 여성리더들 간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보다 긴밀하게 형성하고 자매애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대전YWCA

+ 제22회 대전여성포럼



대전YWCA는 지난 7월 6일 '탈북여성·이주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2회 대전여성포럼을 개최했다.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의 사회로 포럼의 문을 열었으며, 심우찬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이주여성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저해요소-도덕적 손상'과 신희정 중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탈북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지정토론을 통해 실제 이주여성과 탈북여성이 직접 접하는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듣고, 이주여성 및 탈북여성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정착 여건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축산동물복지촉구 캠페인



대전YWCA는 지난 8월 30일 대전 중구 지하상이 무대 공연장에서 '행복한 닭이 건강한 알을 낳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동물복지는 실현되어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축산동물복지촉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축산동물복지에 대해 알리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가족들의 밀집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축산물 구입실태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급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 '불(火)의 날' 캠페인 100회 특별집회

대전YWCA는 매주 화요일 북대전IC 만남의 광장 앞 사거리에서 핵연료 처리 실험을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취소를 촉구하는 '불(火)의 날'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월 10일은 '불(火)의 날' 캠페인 100회



차를 맞아 특별집회를 열고 북대전IC 만남의 광장 앞 사거리부터 원자력연구원 앞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호소문 낭독, 구호 외치기, 탈핵을

●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

+ 청주 폭우 피해지역 수해 복구활동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월 22일 새마을지도자 50여 명과 함께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남일면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또한 청주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5개 회원단체가 모은 성금 100만원도 전달했다.

+ '다문화가정 친정부도 되어주기' 교육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월 27일 대전시여성지도자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인 '다문화가정 친정부도 되어주기' 교육을 실시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결혼생활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김형태 전 한남대 총장과 안현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사가 각각 '한국 가정문화의 이해', '결혼이주 여성의 성향 및 친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전국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 및 다문화가족 힐링콘서트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개최한 '2017 전국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 및 다문화가족 힐링콘서트'에 참석했다. 대전에서는 다문화가족 박인옥(중국) 외 2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세상' 노래로 장기자랑을 펼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도 및 시·군·구 회장단의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 제28회 소비자 정보 전시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28회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열었다. 대전시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는 총 3회에 걸친 금년 '찾아가는 맞춤형 눈높이 소비자정보전시회' 중 마지막 행사였다. 소비자 정보를 담은 포맥스 보드패널 30여 점과 품포드 30여 점, 비교 전시물품 9개 품목, 57개 제품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간단한 소비자상담도 병행했다.

✦ 물가동향 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는 전통시장, 마트, 대형유통업체 등 대전지역 유통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정기 물가조사'와 '성수품 물가조사'를 실시했다. 6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걸쳐 생필품 54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20개 품목을 조사해 발표했고, 9월에는 2회에 걸쳐 추석 성수품 40개에 대해 추석 물가조사를, 11월 6일에는 김장용품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김장 물가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올해 추석 물가조사 차례상 비용은 2016년보다 9.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김장 물가조사에서는 고춧가루를 제외한 대부분 김장물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소비자 교육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전 시내 수능이 끝난 18개 고등학교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초년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예방 및 사후 구제방법을 안내했다. [W](#)

대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마을, 공동체로 물들다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성장할까?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자연적 성장주기(natural lifecycle)'에
따라 생각해볼 수 있다.



2018년 대전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은 1월~2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접수는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한 방문 및 이메일 접수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일정 및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socialcapital.kr) 또는 전화(042. 334. 1253) 문의로 확인 가능하다.

자연적 성장주기? 식물의 성장단계를 생각하면 된다. 식물은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고, 이 새싹에서 '열매'가 나온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룬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의 성장이 공동체들이 모여 숲을 이루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동네에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분, 삼삼오오 모여 작당모의를 꾸꾸는 분, 마을일을 하며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간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크게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청년거점 공간' 등 4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외에 마을 리빙랩, 지역화폐 시범 조성, 공유네트워크 등 기획공모사업이 있다.

🌱 모이자 사업 | 씨앗에서 새싹으로

자발적 의지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씨앗단계(발굴)와 지역 내 공동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동체 활동을 개시하는 새싹단계(성장) 사업이다. 마을활동을 처음 시작하려는 2인 이상의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시민이 마을활동가 멘토들의 멘토링의 통해 모임을 구성하거나 학습을 하고 마을을 조사해보면서 초기 주체를 만든다. 인적·물적 자원을 구성하는 단계로 신규 마을활동가 발굴, 공동체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해보자 사업 | 새싹부터 열매까지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존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마을사업에 적합한 모델을 구체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신뢰와 배려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유서가, 마을조사, 텃밭, 돌봄교실, 마을미디어, 마을학교, 마을워크숍, 소규모 마을축제 등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사업, 2개 이상의 마을공동체 협업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동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민 관계망 형성을 통한 자원연계 기반 조성, 주민자치의식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이다.

🌱 가꾸자 사업 | 숲으로 성장하기

마을 안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간거점 형성을 지원하고, 마을의 순환경제구조화 또는 복지, 문화, 경제 등 융·복합적 마을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동 단위 마을 네트워크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마을공동체 활동 3년 이상의 공동체 및 법인 또는 다양한 주민조직 3개 이상의 공동체 및 법인으로 동네네트를 구성하고 학습,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동네 공동체 모형 구축 및 마을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마을거버넌스가 강화되는 시기로 지역주민 자긍심 향상, 마을공동체의 지속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마을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청년거점공간 지원사업 | 청년과 마을의 만남

청년과 마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간거점 형성을 지원하고, 거점공간 형성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청년 공동체 및 활동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 의제 발굴, 청년공동체의 지속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청년 자원활동을 주 사업으로 하는 공동체 및 법인이다. [W](#)

최고의 밥상

로컬푸드로 만드는 '건강한 우리집 식탁'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저녁 밥상 차리기는 30~40대 직장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장보러 가기가 쉽지 않은 여건과 바른 먹을거리를 찾기 어려운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가족 식사를 대충 때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대덕구의 주민들은 이런 고민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졌다. 바쁜 직장맘을 위해 가까운 농가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와 안전한 먹을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이템 로컬푸드로 가꾸는 지역 공동체
주요활동 로컬푸드 요리 개발, 식품안전 교육, 도농교류



1



로컬푸드로 끈끈해지는 마을 공동체

최고의 밥상(로컬푸드 살림단)은 로컬푸드 활성화와 안전 먹을거리 교육을 위해 2015년 만들어진 주민모임이다. 식품 안전교육과 함께 로컬푸드 요리법 등을 꾸준히 개발해 온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2016년에는 ‘로컬푸드 동네부엌’으로, 2017년에는 ‘로컬푸드 도농 다리잇기’ 사업으로 대전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해보자’ 부문에 선정됐다. 건강한 가족밥상 만들기, 대덕구 지역의 농가 체험 및 농가 상품 개발, 식품 안전 교육 등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더 많은 로컬푸드 소비를 통해 건강한 마을 만들기 나선 이들은 먼저 ‘직장맘을 위한 로컬푸드 동네부엌’으로 가정을 둔 직장 여성들이 하루 한 번이기 쉬운 저녁 밥상이라도 건강하게 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했다. 2017

년에는 더 나아가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반찬 만들기부터 도농교류까지

16년에는 인근의 아파트와 주거지역 홍보를 통해 엄마모임과 직장맘들의 신청을 받은 이들은 로컬푸드로 직접 반찬을 만들어 공급하는 한편, 반찬을 지역화폐로도 교환할 수 있게 해 공동체로 성장한 마을에 대안경제를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또한 대덕구 내의 로컬푸드 생산자들을 소개하며 건강한 먹을거리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탰다. 17년에는 더 나아가 대덕구 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근 농가를 방문해 농촌체험 및 농산물 재배과정을 익히는 ‘얼굴 있는 로컬

푸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도농 간 신뢰를 쌓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로컬푸드’라는 단위사업으로 로컬푸드 상품을 지역민에게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했다.



1 농가방문 및 농촌체험 2 직장맘들의 반찬 만들기
3 농산물과 생산물 직거래 장터 4 식품안전 강의

가깝고, 안전하고, 관계있는 먹을거리

최고의 밥상은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넓히면서 무분별한 먹을거리를 피하고 얼굴 있는 생산자가 재배한 로컬푸드를 이용해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해부터 꾸준히 ‘건강한 먹을거리’,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강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6년에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주고 싶은 엄마들의 바람을 담은 ‘함께 만드는 로컬푸드 동네부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중공개강좌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의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른 먹을거리와 성장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농가상품 개발 모임을 월 1회마다 개최했다. 모임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조사하고 제철 로컬푸드 판매를 위해 상품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았다.

최고의 밥상(로컬푸드 살림단)은 “그간 로컬푸드 음식을 같이 해먹으며 정을 나누고 단절됐던 이웃 간의 소통도 크게 늘었다. 또한 도농 간 교류로 가깝고 안전하고 관계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으로 로컬푸드를 매개로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W



117년간 18명, 노벨 과학상 여성 수난사

과학계에도 존재하는 ‘유리천장’?

117년 역사를 자랑하는 노벨상은 지난해까지 총 911명(기관 포함)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49명(5.4%)에 불과하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등 과학 분야만 보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지금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모두 590명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은 18명(3.1%)이었다. 그나마 생리·의학상(12명)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벨 화학상은 4명이었고, 노벨 물리학상은 단 2명에 그쳤다.

글 · 지나라_과학스토리콘텐츠 SC00P 팀장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당대의 유명 물리학자들이 한 심포지엄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 여성의 모습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사진 출처_픽사베이



노벨상. 특히 노벨 과학상은 여성에게 인색했다.
사진 출처_픽사베이

시인 이상(李箱)은 경성공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뛰어난 공학도였다. 서울대 공대의 전신이면서 동시에 문학 소년이었다. “조선에는 더 읽을 책이 없다”라고 스스로없이 말할 정도였으니까. 1937년 그는 일본 도쿄에서 ‘불량선인’으로 체포된다. 그리고 폐병이 악화하여 이듬해 4월 쓸쓸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스물여덟이었다.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는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한 물리학도였다. 대학 강사로 임용되었지만,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못했다. 급기야 학과장으로부터 “형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너를 채용한 것이니 분발하라”는 치욕스러운 충고를 듣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연구에 몰두한다. 그리고 1934년, 훗날 일본에 최초의 노벨상을 안겨줄 ‘중간자 이론’을 발표한다. 그의 나이 스물여덟 때의 일이다.

노벨상은 불공평했다, 특히 여성에게

해마다 노벨상 시즌이 되면 ‘박제가 된 천재’와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식민지 조선의 청년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이해했지만,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 몰랐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를 쓰는 것뿐이었다. ‘오감도’와 ‘선에 관한 각서, 삼차각설 계도’, ‘건축무한육면각제’와 같은 시는 그런 방향과 지적 고뇌의 산물이었다.

한 명은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공학도의 꿈을 펴지 못하고 비명횡사했다. 다른 한 명은 일본 제국에서 태어나 노벨 물리학상(1949년)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처럼 스물여덟 두 청년의 운명을 가른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실력과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노벨상 시즌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역사와 과학이 그랬듯 노벨상도 공평하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이 공평하지 않았다. 여성에게는 특히 그랬다.

117년 역사를 자랑하는 노벨상은 지난해까지 총 911명(기관 포함)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49명(5.4%)에 불과하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등 과학 분야만 보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지금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모두 590명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은 18명(3.1%)이었다. 그나마 생리·의학상(12명)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벨 화학상은 4명이었고, 노벨 물리학상은 단 2명에 그쳤다. 2017년 노벨상 수상자 12명(기관 포함) 역시 모두 남성이다. 여성 비율은 더 낮아졌다.

절대적인 숫자가 적다 보니 기억나는 여성 과학자도 많지 않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1911년 화학상까지 받은 마리 퀴리(1867~1934) 정도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

을 뿐이다. 마리 퀴리는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유일하게 노벨상을 두 번 받은 여성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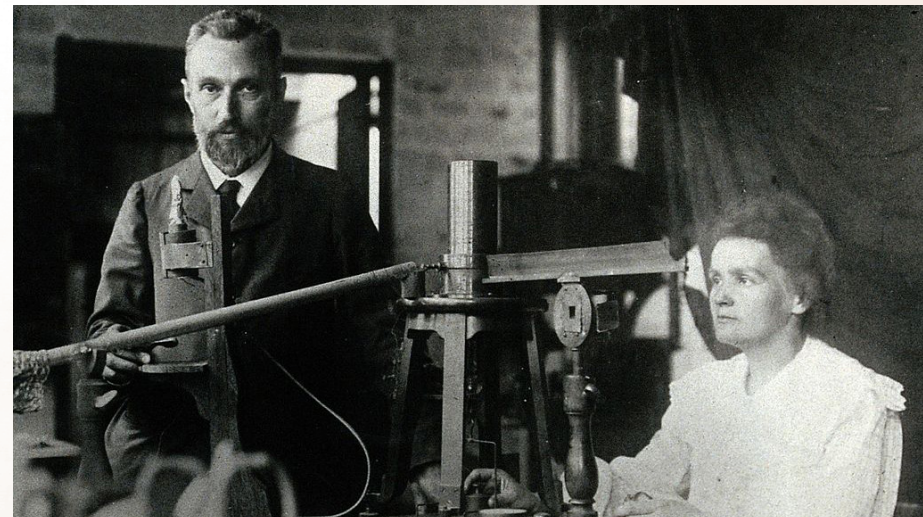
퀴리 이후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데 60년이 걸렸다. 1963년 수상자 마리 아 괴퍼트 메이어(1906~1972)가 주인공이다. 물론 괴퍼트 이후 지금까지 54년 동안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단 2명

노벨상은 여성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 지면을 통해 언젠가 소개했듯 1903년 노벨상 위원회는 애초 퀴리의 남편에게만 물리학상을 주려고 했다. 1911년에는 노벨상위원회가 퀴리에게 “노벨상 수상을 거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남편과 사별한 뒤 퀴리가 가정이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자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소르본 스캔들’이라 명명하고 잇따라 선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사생활’을 트집 잡아 노벨상을 주지 않기에는 퀴리의 업적이 너무 뛰어났다.

또 한 명의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괴퍼트 메이어는 지금으로 보면 그야말로 ‘비정규직’의 삶을 살았던 여성 과학자였다. 그

마리 퀴리와 남편 피에르 퀴리.
노벨위원회는 마리 퀴리에게 노벨상을 주는 것을 주저했다.
사진 출처_위키프리





●마리 퀴리에 이어
두 번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리아 괴퍼트 메이어.
사진 출처_ 위키트리



●강단에 선 리제 마이트너.
노벨상을 받은 오토 한에 버금가는
연구 업적을 남기고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사진 출처_ 위키트리

녀는 남편인 에드워드 메이어를 따라 1931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기나긴 비정규직의 길을 걷는다. 남편이 존스홉킨스, 콜롬비아, 시카고 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괴퍼트 메이어는 계약 교수, 시간제 연구원 등을 전전 하다 마침내 1960년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정식 교수가 된다. 그녀의 나이 53세였고 박사 학위를 받은 지 무려 30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1963년 괴퍼트 메이어는 원자핵의 껍질 구조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다. 노벨상 받을 때 신분은 정식 교수였지만, 노벨상을 받게 된 연구는 비정규직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해당 대학에서는 괴퍼트 메이어를 정식 교수로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부를 같은 학과 교수로 채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괴퍼트 메이어가 여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뛰어난 연구 업적을 남겼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벨상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여성도 적지 않다. X-선 회절 사진으로 DNA 이중나선구조를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로절린드 프랭클린(1920~1958)이 대표적이다. 1962년 왓슨, 크릭, 윌킨스 등 세 명의 과학자는 DNA 이중나선구조를 발견한 업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프랭클린은 이보다 4년 앞선 1958년, 37세의 나이에 암으로 눈을 감았다. ‘생존한 사람에게만 준다’는 노벨상 규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사 프랭클린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하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리제 마이트너(1878~1968)도 노벨상의 대표적인 여성 차별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다. 109번째 원소인 마이트네리움(Meitnerium)이 바로 그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마이트너는 오토 한 등과 함께 핵분열의 원리와 우라늄 연쇄반응의 메커니즘을 밝힌 과학자였다. 하지만 이러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도 끝내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반면 공동 연구자였던 오토 한은 1944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마이트너의 연구 업적이 오토 한보다 뒤졌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가 여성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여성이 남성의 절반만큼
대접받으려면,
여성은 남성보다
두 배로 잘해야 한다

Rosalyn Yalow 1921~2011



“남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노벨 과학상을 받은 여성의 수가 적은 이유는 단순하다. 무엇보다 여성 과학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19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중반까지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공계 분야는 특히 그랬다. 또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겨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노벨 과학상은 여성에게 공평한 게임의 장도 아니었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성이 남성의 절반만큼 대접받으려면, 여성은 남성보다 두 배로 잘해야 한다.” 1977년 여성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로잘린 알로우(1921~2011)가 남긴 말이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그녀가 이런 말을 남길 정도였으니 과학계 성차별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차별의 역사가 이상과 유가와 히데키의 운명을 갈랐을 것이다. 박제가 된 천재가 그랬듯 ‘유리천장’에 갇힌 여성 과학자도 어디선가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 모른다. “남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여성의 노벨 과학상 수상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같은 심정으로 한국의 첫 노벨 과학상 수상 소식도 기다린다. 무엇보다 약자라고, 여성이라고 날개가 꺾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W**

치과의사가 엿본 인생



글 · 이용화_이용화플란트치과 원장

사연이 없는 인생은 결코 없다. 그와 비슷하게, 치과의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아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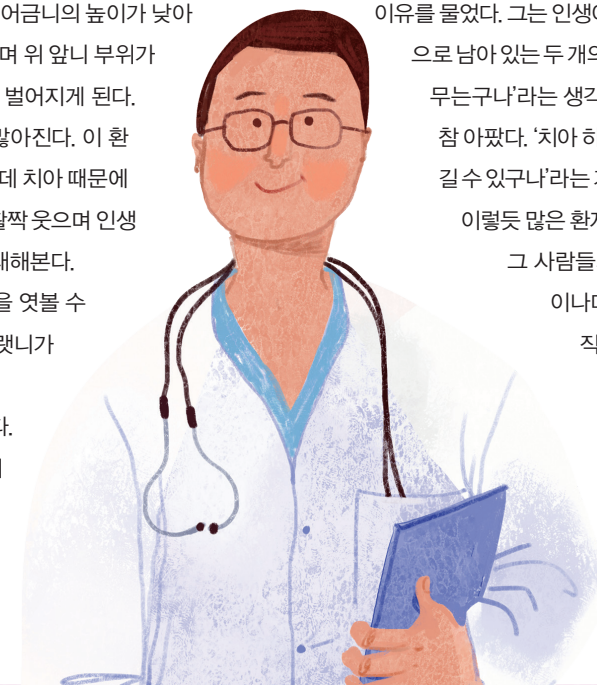
얼마 전 50대 여성 환자의 입속을 보니 그분의 신산스러웠던 삶의 편린이 아주 조금이지만 보였다. 젊어서 혼자가 되어 4자녀를 키우며 사는 동안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살았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치아의 마모가 굉장히 심했다. 이를 지속적으로 악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상은 잇몸이 시작하는 부위에 도끼날로 팬 것 같은 흠이 생긴다. 또한 씹는 근육(교근)의 발달로 턱이 젊었을 때 보다는 사각으로 변하게 된다. 어금니의 마모로 치아 길이가 짧아지면 얼굴의 길이가 줄어들어 계란형 얼굴이 네모진 얼굴로 변화한다. 어금니 마모가 심해지면 당연히 어금니의 높이가 낮아지므로 위, 아래의 앞니끼리 서로 부딪치며 위 앞니 부위가 점점 바깥으로 빠드러지게 되고 공간이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활짝 웃지 못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이 환자는 인생이 고달파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치아 때문에 더 웃고 싶지 않다고 한다. 치료 완료 후 활짝 웃으며 인생의 남은 여정을 곳곳하게 헤쳐 나가길 기대해본다.

또 다른 환자가 있다. 젊은 날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환자였다. 슬며시 웃자 윗니와 아랫니가 만나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입속을 보자 습관성 구토의 흔적이 보인다. 참을 수 없는 식욕과 유지하고 싶은 몸매 사이의 갈등 결과, 이 두 가지 욕망을 다

충족시키는 한 가지 잘못된 방법이 습관성 구토다. 습관성 구토 환자의 치아 특징은 앞니들이 역류하는 위산에 의해 서서히 녹아서 짧은 치아로 변하면서 위, 아래 치아가 다물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행히도 이 여성 환자는 더 이상 구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녀가 이야기할 때 찡한 무언가를 느꼈다.

지난 18년간 치과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깊이 기억되는 환자가 있다. 윗니 2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 2개 치아마저 빼야 되는 상황이었다. 풍치 증상이 너무 심해 잇몸 뼈가 다 녹아서 살릴 수 없으니 빼자고 말하고 간단한 마취 후 이를 뽑게 되었다. 이를 뽑는 순간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 내렸다. 필자는 아파서 우는 줄 알고 놀라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인생이 서글퍼서 운다고 말했다. 마지막 으로 남아 있는 두 개의 이를 빼면서 ‘내 인생도 여기서 저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필자의 마음도 참 아팠다. ‘치아 하나,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길 수 있구나’라는 가르침을 준 환자였다.

이렇듯 많은 환자들의 입속에 숨겨진 치아를 통해 그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퍼즐 맞추듯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직업이 치과의사란 직업이다. 필자는 묻고 싶다. 여러분들의 입속을 보게 될 치과 주치의에게 인생의 어떤 편린을 보여 주겠는가? **W**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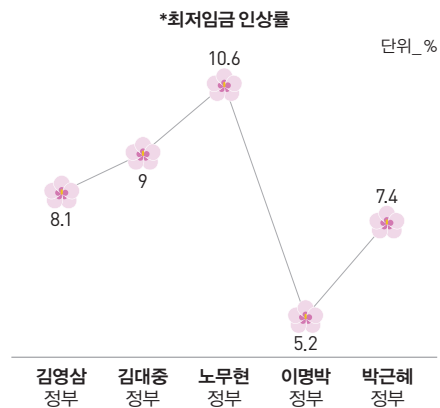


글 · 이은정_노무법인 정음 대표노무사

필자는 지난 7월 16일, 아침 뉴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선후보들 모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노동분야 대표공약으로 내세웠기에(실현시기에 차이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인상을 16.4%’는 전혀 짐작하지 못한 숫자였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1988년 이래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9% 인상해왔다. 이 같은 인상을 유지된다면 2022년 자연스레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되는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앞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열기로 뜨거운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해 필자와 함께 잠시 생각해보도록 하자.



최저임금 1만원, 왜 필요한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와 함께 물밀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 물가로는 한 달 135만원으로는 살기 너무 힘들다. 환영한다.”, “사회양극화 해소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소비활성화·내수진작 효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내 임금도 올라갈 것 같다.” 등 대폭적 인상을 찬성하는 의견과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은 다 죽으라는 것이냐.”, “알바보다 못한 사장도 있다.”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이러한 팽팽선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전했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거센 사회 반응에 아심차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던 정부도 팽팽한 여론을 의식하며 정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로드맵의 서막이 열렸다.

최저임금 1만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이는 2013년 알바연대(현 알바노조)에서부터 시작된다.

소비활성화, 내수진작 효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VS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항상 물가 인상을보다 임금 인상이 낮고, 대기업의 순이익은 늘지만 임금은 정체되는 잘못된 임금구조를 바로 잡자는 의미로 최저임금 1만원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요구로 발전해오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바로 ‘저임금 근로자와양극화 극복’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 근로자와 근로빈곤층이 급증했고 OECD 최고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과 임금 불평등이 발생하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자연스레 생기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빈곤층의 적정생활 보장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하였고, 실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최저임금 인상발표 이후 필자가 필자의 기업고객을 비롯하여 기업대표들의 모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최저임금 올라가면 너무 좋지. 내가 기업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무조건 찬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경기도 그렇고.. 결국 사람을 내보내야 할 수도 있겠죠.”였다.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하는가가 뜨거운 논란인 것이다. 기업·근로자·정부(국민) 중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내년을 넘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사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최저임금과 소득분배의 관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등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 계층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낳을지 현재로서는 정말 짐작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해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정부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속해있다는 통계에 근거하여,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약 3조의 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계획을 지난 11월 9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단,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경매원·청소원에 대하여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지원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 오프라인 4대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 지급 ·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 업무 대행

정부는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외에도 4대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4대보험료 부담 경감계획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월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율도 기존 60%에서 90%로 인상
- 안정자금 대상이면서 신규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50% 경감
2018. 1. 1.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가 4대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두고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느냐라는 반대여론도 있지만, 영세사업주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1년 후부터는 자체적 부담이 가능할지 이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맞는 제도개선이 되길

필자가 노무사 수험공부를 하던 시절, 답안에 입법 목적이나 해당 조항의 규정 취지를 녹여내는 것을 고득점 팁으로 알려준 교수님이 계셨다. 입법 목적만큼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말해주는 규정이 또 있을까.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가.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화두는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부단히 논의 중인 것으로 느껴진다. 많은 우려 속에서 시작한 만큼 2018년, 긍정적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딸기와 라즈베리의 만남

추위 녹여 줄 따뜻한 차 한잔 어떠세요?



글 · 사진 · 민정희_슈가시크릿케익아트학원장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줄 차 한 잔을 자연스레 찾게 된다. 온기를 놓칠세라 두 손 가득 찻잔을 감싸고 한 두 모금 마시다 보면 어느새 추위는 눈 녹듯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나만의 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수제청, 수제차와 함께라면 매서운 추위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딸기 100g, 라즈베리 80g, 설탕 260g,
딸기과육 80g, 레몬즙 100g
※ 재료(500g 기준)

딸기 라즈베리청



딸기와 라즈베리를 잘게 다져준다.



잘게 다진 딸기와 라즈베리를 거품기를 이용해 설탕과 잘 섞어준다. 이때 레몬즙도 함께 넣어준다.



20분 정도 잘 섞은 후 병에 넣어 준다.



병에 담은 청은 냉장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재료

라즈베리 청, 뜨거운물 혹은 우유,
레몬조각

딸기 라즈베리청으로 만든 수제차



기호에 따라 딸기 라즈베리청 적당량(1~2 큰술)을 찻잔에 담는다.



뜨거운 물(종이컵 2/3)이나 우유를 따라 잘 섞어준다.



레몬 조각등을 함께 곁들여 마시면 더욱 좋다.



딸기 라즈베리청 효능

지방분해와 식욕억제에 효과적이어서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여성의 큰 고민거리인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콜레스테롤도 낮추어주고,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특히 라즈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씨가 많아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홍미애 센터장

“1인 미디어 시대,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UCC, 1인 방송 등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미디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물론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장비 등 준비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걱정, 고민을 날려 줄 수 있는 곳이 대전에 있다. 2014년 7월 개관한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CT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미디어 계통에 관심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공간이다.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센터의 중심에는 홍미애 센터장이 있다. 오늘도 시민들이 미디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홍미애 센터장	
'90. 3. - '00. 4.	대전매일(현 충청투데이) 편집부차장
'01. 6. - '01. 12.	(주)이메디피아 웹기획 팀장
'01. 12. - '11. 1.	충청투데이 부국장(온라인미디어 총괄)
'02. 4. - '12. 12.	충남도청 미디어센터콘텐츠 팀장
'11 - '14. 3.	문화가치원 대표
'14. 3. -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장

Q. 방송, 언론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고요, 대학 1학년 때 학보사 기사를 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언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년 후 마침 창간된 지역신문에 편집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당시 우리 신문사는 전국 최초로 편집기자가 직접 컴퓨터 조판을 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취재기자가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전인 1990년도에 편집기자가 조판을 했던 거지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됐고요. PC통신부터 홈페이지 개발, 관리까지 자처해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신문사에서 아주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지역 100여 명 블로거들과 함께한 '파블뉴스와 문화인 100인 동영상 DB구축, 충청투데이 창간호부터 디지털라이브리리 구축, 2010년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사송고 앱 개발 등은 혁신적이거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들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2001년부터는 무료 동영상 교육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을 10년 정도 했고요, 2010년부터는 공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과 문화가치원 만들었습니다. '코워킹스페이스 별집'을 운영하며 TEDx,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Q.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어떤 곳인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에 의해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2014년 7월 16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이고요,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제작물이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과 방송을 차별 없이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디오나 TV 방송체험이 가능하고요, 누구나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시설과 장비를 빌려줍니다. 또 시청각 장애인들도 쉽게 보고 듣게 하기 위해 폐쇄자막, 수어방송, 화면해설 제작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합니다. 전국에 모두 7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데요, 대전센터는 타 센터에 비해 청소년 프로그램에 특화돼 있습니다. 미디어인재 양성을 위한 '놀배만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놀다, 배우다, 만들다, 성장하다의 머릿글자를 딴 말입니다. 체험부터 캠프, 제작경진대회, 방송반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미디어를 즐기고 만들고 활용하면서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 있다면

시니어분들과 함께한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들의 영상제작은 젊은이들에 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관 때부터 오신 분들이 시니어 제작단을 구성하고 매주 한차례 모여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기술은 젊은이들에 비해 조금 떨어져도 스토리에 깊이가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이야기나 어르신

시각으로 보는 인생만사를 영상물로 만날 때 감동을 받곤 해요. 수어앵커 양성 교육도 기억에 남습니다. 수어도 하나의 언어로 자막으로 소통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한 활동가와 농인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손소리복지관과 함께 수어앵커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CMB대전방송의 도움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농인들도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대전지역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어떤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디어시민권과 관련된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이 방영되도록 하는 것을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시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전지역은 센터 같은 지원기관이 없던 2014년 이전에는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대전독립영화협회, 그리고 대학의 관련과와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센터가 개관한 이후 제작 저변이 확대되고 참여 시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사도 정규편성 프로그램은 CMB대전방송의 '열린 시청자 세상'이 유일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만든 별도의 정규프로그램이 더 만들어졌고요, CBS대전이나 TBN대전교통방송 등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부 코너에 참여하기도 하고 TJB에서도 일부 작품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Q. 시민들이 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활동은

우선 지역 1인 미디어 활성화입니다. 최근의 기술발전과 트렌드를 반영해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 내에 1인 방송 제작실을 새로 설치하고 1인 미디어 제작 관련 장비도 보완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VOD형, 오디오 팟캐스트 등 개인이 상상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인 미디어와 병행해서 마을이나 공동체 단위에서도 쉽게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센터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능정보기술사회에서 미디어활용 능력은 누군가의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시대가 되었지요. 보편적이지만 그만큼 개인이나 공동체의 미디어 역량에 따라 기회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차별 없는 균등한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층별, 커뮤니티별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요,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처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리터러시 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Q. 미래의 언론인 및 방송인을 꿈꾸는 사람들, 미디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

생각보다 가까이에 센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스피치나 SNS활용까지 수준별, 생애단계별 과정을 통해 실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센터의 활동과 이용 방법에 관한 2시간 교육을 통해 정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꿈꾸고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미디어 도구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w](#)



대전 전통시장의 변신

삶의 희로애락과 문화예술이 있는 곳

글 · 조강숙_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공감기자단

지난 9월 말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모처럼 전통시장은 제수용품을 마련하려는 인파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붐볐었다. 한꺼번에 많은 종류의 식료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저렴한 가격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찾게 한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여지없이 썰렁해졌다. 명절 등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 더 이상 '값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떠난 발걸음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다.

아파트가 주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단지 공동주택 단지 근처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섰고 시장의 이용률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름마저 웬지 불편하고 깨끗하지 않으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재래시장'으로 불렸다. 게다가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시장의 외면에 불을 지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청년층은 온라인 마켓을, 중장년층은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는 층은 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노년층에 한정됐다.



1 대전중앙시장 입구 2 아케이드형 지붕과 통로 정비로 쇼핑환경이 개선된 중앙시장 3 추석을 앞두고 인파로 붐비는 중앙시장 4 중앙시장 중앙아트 공연장 5 중앙시장 인근 목척교 수변광장에서는 수시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린다

원도심의 핫 플레이스 중앙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이어졌다. 시설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주상복합형 재건축과 아케이드형 지붕설치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질척거리지 않게 되었고, 통로가 정비되었으며 주차장도 확보됐다. 쇼핑의 편의를 위해 쇼핑카드를 비치하기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명절 장보기 시장이용 캠페인' 등의 행사도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대표시장인 중앙시장은 3천여 개 점포의 전국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쇠락과 함께 급격히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이러한 때 대전의 전통시장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반찬거리를 사러 오는 곳이 아닌,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곳으로의 변화이다. 특히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변화가 그것이다.

동구 원동의 전통 깊은 대전중앙시장 인근 목척교 수변광장에서는, 수시로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이 열려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원도심의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중앙시장 안에서 펼쳐지는 '중앙아트 공연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공연장은 중앙시장 흙커텐역에서 주단역까지의 통로에 좌판 형식으로 열리는 수공예품 장터.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작돼 올해는 30여 개 공방 및 수공업가가 참여해 월 2회(2, 4주 금요일 오후) 난전을 연다. 패브릭이나 도자기, 주얼리 액세서리부터 가방, 옷, 천연비누와 화장품, 방향제, 캘리 장식품과 매듭, 퀼트 등 종류도 다양하다. 제품 구입은 물론 이벤트 기간에는 현장에서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이제는 입소문이 나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한다. 한복과 주단, 부속품 점포들과 함께 있어서 물건을 사지 않고 구경만 해도 재미있다. 난전을 펼치고 있는 공예예술가 사장님과의 살아가는 이야기, 작품세계에 대한 대화도 정답다.





6 도마큰시장 입구 7 도마큰시장 비전선포식 '나비날다' 8 도마큰시장 봄내음 축제현장 9 쏘맥 도마페스타 축제현장

문화예술을 품은 도마큰시장

서구 도마동의 4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도마큰시장'은 예전 피혁 및 직물공장과 함께 성장했고, 지금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주택가 근처에 있어 이용자가 많은 편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다. 2016년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된 이후 2년 동안 여러 가지 이벤트로 남녀노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10월 12일에서 13일 저녁까지 양일 간 열린 '쏘맥 도마페스타 축제' 현장으로 가보자. 급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한 100여 개 팀의 참가자들이 주차장 4층 옥상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오롯이 만끽했다. 도시의 불빛과 함께 유등천 풍경과 달달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음악, 그리고 도마큰시장 협동조합의 수제 소시지 '리퓨(Real&Pure)'와 맥주가 어우러졌다.

도마큰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비전은 '나비 날다'로 '나눔을 실천하고, 비상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앞 글자를 따다고 한다. 작년 6월 비전선포식 행사부터 '사랑나눔축제'도 함께 하면서 자선바자회와 음식 나눔, 기부 물품 경매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행사부스도 어린이부터 청·장년, 주부, 어르신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지난 4월 29일부터 16일간 펼쳐진 '봄내음 축제'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아기가자한 이벤트 등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활력이 넘치는 삶의 현장

대전에는 도마큰시장 외에 한민시장, 법동시장, 송촌시장, 으능정이 상점가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물)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상품 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베이비붐 세대인 중장년 이상의 연령층에게 시장은 '장보러 나서는 엄마를 따라 나섰던 추억'으로 기억된다. 그때는 동네마다 반드시 시장이 있었고, 시장에는 하루 밥상을 책임지는 소박한 먹거리부터 모처럼 큰맘 먹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옷가지 등 각양각색 삶의 모습과 이야기, 애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활력이 있었다. 더 나아가 요즘 전통시장은 문화예술의 현장이 되고, 남녀노소가 모두 찾아오고 즐기고 싶은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오감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가 보자. [W](#)



2017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일반부 대상

직장과 집안일_주혜원

여성의 불평등한 가사노동에 대한 의미를 담은 작품. 경고의 의미를 담고있는 붉은 색을 배경으로 직장가 가정을 상징하는 하의·신발을 착용한 여성의 다리를 표현